

리비도의 의의

수필가 최규자

리비도(libido)는 애욕(愛慾), 성욕(性慾)이나 또는 일반적으로 성적 충동을 뜻하는 말인데, 원래는 라틴어로 욕망(慾望)이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1898년에 모홀(Mohl)이 처음으로 성욕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정신분석(精神分析)에 있어서의 성적(性的) 에너지를 뜻한다.

오스트리아의 의사 프로이트(S.Freud)에 의하면 배고픔이 영양섭취의 충동을 발동시키는 힘이 되듯이 리비도는 성적 충동을 발동시키는 힘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성욕을ダイナ믹하게 표현한 일종의 성(性)에너지이다.

그러나 정신분석학(psychoanalysis)의 제창자 프로이트(1856-1939)는 성욕을 사춘기에 이르러서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유아기의 시초부터 입술(口脣)성욕과 항문(肛門)성욕으로도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 개념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는 사뭇 넓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에너지를 축전지에 저장하듯이 리비도는 어떠한 대상에 주입·축적(蓄積)·점거(占據)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리비도를 대상리비도라고 한다. 대상(對象:object)은 목표가 되는 것인데, 철학에서는 인식작용(認識作用)의 목적이 되는 객관의 사물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자아에 축적된 리비도를 자아리비도 또는 나르시시즘(narcissism)적 리비도라고 칭한다.

또한 그의 초기에 있어서는 리비도와 자아충동(自我衝動) 곧 자기보존(保存)충동과를 대립시켰다. 그러나 1923년 경부터 그의 리비도와 자아충동의 일부를 혼합하여<성의 본능>이라고 명명하고, 이를 이른바 죽음의 본능과 정면으로 대립시켰다.

또 융(C.G.Jung)은 리비도를 성적인 에

너지로 생각하지 않고 널리 생명의 에너지, 즉 베르그송(H.Bergson)의 에랑비탈(élan vital)의 약동(躍動)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생각하였다. 프랑스의 철학자 베르그송(1859-1941)은 생의 창조적 진화(Bergsonism→creative evolution)를 논하고, 철학뿐만 아니라 문학과 미술 방면에도 세계적인 방향을 일으켰다. 그의 소위 ‘에랑비탈’(vital force)은 발랄한 원기 또는 생의약동이라고 번역되는데 그에 의하면 물질계에 내재하고 있는 모든 유기체의 진화에서 그 배후에서 주축의 힘이 된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프로이트(1856-1939)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이다. 주로 빈에서 활동한 그는 샤르코·리보·브로이에르 등의 영향을 받았다. 최면에 의한 신경증환자의 임상 치료에서 카타르시스 요법을 발전시켜, 자유연상법에 의한 정신분석을 확립했다. 자유연상(自由聯想)이란 어떤 말이 주어졌을 때, 그 말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로이 연상해 나가는 일이다.

카타르시스(catharsis)는 원래 의학에서 배설, 배변(排便 :purgation)을 뜻한다. 예술 특히 비극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부터의 해방, 또는 정서(情緒)의 정화 따위를 의미하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가

만들어 낸 설이다. 즉 연애에서 비극에 의하여 관중의 격앙되거나 격동된 정서를 생리적 또한 심리적으로 정화하는 작용을 말한다. 곧 마음의 정화(淨化)를 지칭한다. 의학에서는 정화법(淨化法)이라 하여 공포나 콤플렉스 따위를 똑똑히 의식에 떠올리고 그것을 남에게 말하여 경감시키는 정신의학요법을 말한다.

또 환자의 꿈에 자유연상의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내용을 발견하고, 심리학적 병근을 푸는 열쇠가 꿈에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꿈의 내용이 강한 감정적 과거체 협의 상징을 나타내는 사례들로부터, 이러한 무의식의 세계가 환자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무의식의 작용을 탐구하여 마침내 리비도론(論)을 확립시키기에 이르렀다.

또 임상을 통해서 중요한 기억의 대부분이 성적 경험인 것에서, 전체적으로 성적 장애에 중점을 두는 이론을 구축하였다. 그리하여 사물을 깨닫는 작용이 없는 무의식(無意識:unconscious)의 세계나 리비도를 심리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그의 업적이 지금까지도 높이 평가된다. 그의 저서에 <<정신분석학 입문>>과 <<꿈의 판단>> 등이 있다.

또 스위스태생의 역시 정신과의사이며 심리학자인 융(Carl Gustav Jung:1875~1961)

은 인간의 성격을 내향성(內向性: introversion)과 외향성(外向性: extroversion)으로 분류했다. 또 개인의 무의식 속에 역사적 배경을 가진 소위 집단적 무의식의 존재를 주장했다. 프로이트와 아들러와 함께 국제 정신분석학회를 창립 하였으나, 후에 탈퇴하여 치료와 저작에 전념(專念)하였다. 그의 저서로는 <<리비도의 변전과 상징>>, <<심리적유형>>과 <<무의식의 형성>>등이 있다.

프랑스의 철학자 베르그송(Henri Bergson : 1859-1941)은 생(生)의 철학과 직관주의의 대표적 사상가이다. 콜레즈드 프랑스의 교수를 역임하였고, 1927년에는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의식은 과거를 안고 미래를 파괴하는 삶의 흐름이며, 이른바 순수 지속으로서 직접 체험된다고 역설하였다.

세계의 근원도 의식과 비슷한 지속으로서 이질적인 것이 서로 침투하는 생성(生成)이며, 끊임없는 생명적 약동이다.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분석적(分析的) 지성이 아니라 일거에 내면을 공감하는 직관(直觀: intuition)이다. 삶의 약동은 도덕과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인류애에의 이른바 사랑의 비약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사상은 종래의 기계론적 자연관이 나 주지주의(intellectualism) 대신에 생명이

나 정신의 독자성을 재검토하는 비합리주의 사조의 일부를 이루어 문학이나 사회 사상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그의 저서에는 <<의식이 직접 소여(所與)>>, <<물질과 기억>>, <<창조적 신화>>와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 등이 있다. 엄밀히 말해서 쇼펜하우어(A.Schopenhauer)와 하르트만(Hartmann)의 영향이기도 하나, 보다 심리학적인 설명을 부여함으로써 무의식으로 나오는 본능적 에너지로 정리한 것이다.

주지주의(主知主義)는 철학에서는 지성(知性)과 이성(理性)의 정신활동을 존중하는 이론이다. 주의주의(主意主義: voluntarism)와 대비되는데, 라이프니츠와 헤겔이 주장한 철학이다. 윤리에서는 도덕적 의지가 이성적 지식과 반성에 따라 규정된다는 소크라테스와 스토아학파의 설이다. 문학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유럽문학의 특징적 경향(傾向)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감정보다도 작가의 지성을 중시하는 문학의 한 경향이 주지적 문학(主知的文學: intellectual literature)이다.

리비도는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항상 할 때에는 상징의 형체를 취한다고 한다. 리비도는 성적 충동에도, 권력에의 의지에 도, 기타 어떠한 충동이나 주어지는 에너지

지로서, 그의 이러한 변화를 인류학과 신화학(神話學:mythology)등에서 구하였다.

리비도가 환경에 대하여 순응(順應)을 행하고, 에너지가 무의식에서 의식의 방향을 취할 때에 이를 소위 전진운동(前進運動)이라고 하며, 의식에서 무의식의 방향을 취할 때에 퇴행운동(退行運動)이라고 한다. 리비도는 이 밖에 전진과 후퇴 또는 내향 및 외향으로 이동한다.

요약하면 리비도는 정신분석용어로 성적 에너지를 말한다. 프로이트는 리비도

가 입술·입·항문·요도·피부·성기의 자극부위를 차지하여 발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융은 보다 널리 포괄적으로 생명 에너지라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서 심리학에서 리비도를 넓은 뜻으로 성적 충동을 발동시키는 근원적인 힘으로 정의되고 있다. 또 넓은 뜻으로는 인간 행동의 동기가 되는 모든 심리현상의 근원적인 힘이다. 즉 무의식의 심층(深層)에서 나오는, 인간 행동의 바탕이 되는 근원적인 욕구이다. ●